

# 찬불가 부르며 자비실천

## 불자련·가톨릭가합창단등 복지단체 위문공연 '열심'

찬불가를 부르며 음성공양활동을 펼치던 합창단원들이 그 노래 속의 가사를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최근 49세의식을 비롯 복지단체 위문공연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불교계 합창단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이같은 활동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이하 불자련) 합창단을 비롯 가톨릭가합창단, 부산자비실천회 합창단, 대구영남불교대 합창단 등이 대표적이다.

12월 3일 오후 7시30분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창단식을 갖는 불자련 합창단(단장 황영희)은 음성공양과 이를 응용한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전문 자원봉사합창단으로 출범한다.

불자련 합창단은 원왕생 영불봉사단과 함께 상가등을 방문하여 '무상계' '빛으로 돌아오소서' 등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찬불 조가(唱歌)를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합창단은 사회·복지단체 위문연주 및 49세, 천도

제 행사에도 참가하여 음성공양 자원봉사를 한다.

가톨릭가합창단(단장 성지민)은 94년 창단 이래 사회복지법인 숭가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소백산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자신바자회도 개최하여 후원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매달 경기도 화성 자재정사 양로원과 노비구니스님 요양시설인 수양원을 방문하여 목욕봉사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 자비실천회(회장 한영옥) 합창단은 94년 7월에 찬불가를 배우는 보살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매주 한번씩 부산 청송 대구교도소 정화양로원을 찾아 음성공양 자원봉사를 한다.

18일에도 회원 30여명이 TV 10여대를 들고 부산교도소를 찾았다. 3백여명의 재소자들은 합창단의 찬불가공양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함께 따라부르기도 했다. 한영옥회장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사를 음미하며 그

뜻을 재소자들과 나누어 가질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94년 창단된 대구 영남불교대 합창단(단장 우학스님)도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음성공양을 하는 것은 물론 교도소와 병원봉사팀으로 나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교도소팀은 1달에 한번씩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주고 찬불가교양도 함께하고 있다. 또 병원봉사팀은 매주 1회씩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각 병실들

로며 패유기도를 하고 합창단의 찬불가 테일을 들려주며 환자들과 함께 찬불가도 부르고 있다.

합창단이 자원봉사활동에 뛰어 들고 있는 현상과 관련 가톨릭가회 합창단 최유영총무는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에 더 나눌수 있어서 좋다"며 "사회복지시설들을 찾아다니며 활동하다보니 자원봉사활동도 하자는 단원들의 의견이 일치돼 자연스럽게 참여하게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향산별 연무사 중창불사 낙성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법사 경연수) 중창불사 낙성이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포교위원장 성타·포교부장 원해·마곡사주지 철승스님 등 시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4년만에 완공된 호국연무사는 건평 7백40평 규모로 훈련병 3천여명이 동시에 법회를 통할할 수 있다.

### 뉴스 & 뉴스

#### 대구 공선협 시민캠페인

대구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는 20일 대구 건축사회관에서 '대선보도와 지방언론의 공정성'을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갖은 뒤 22일에는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공명선거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소영진교수(대구대 정치행정학과)가 '대통령선거와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민영창 사무차장(대구경실련)이 '대통령선거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주제발표했다. 대구공선협은 공주경실련과 연대해 12월 첫째 둘째 일요일 상호방문 형식으로 영호남유권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성북사암련 12월2일 승년법회

태고, 진각, 대한법화, 보문종 등 4개 종단 총무원이 소속돼 있는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회장 종봉)는 12월2일 오후 3시 정릉빌딩 정릉부에서 사암연합회 소속 1백85개 사찰 스님 및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97 승년법회 및 각 정당 불교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 28일 독원스님 초청법회

'삶을 나누시다. 생명을 나누시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28일 오후 5시30분 동국대 학문문화관 대극장에서 생명나눔을 위한 독원스님(적지사 회주) 초청대법회를 연다.

법회에서 독원스님은 "내마음이 내 육신을 버림으로써 다른생명을 생명 나눔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불살생계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형태이다"라는 요지로 법문을 할 예정이다. 이어 생명나눔실천회 1년 활동보고 및 결산과 총 8명의 신장기증자와 수해자의 인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2부 축하공연에서는 강형진씨의 바이올린 독주, 도신스님의 음성공양이 펼쳐진다.

#### 강원련 29일 정기총회

전국전통강원연합회(이하 강원련) 제1차 정기총회가 29일 오후 2시 해인사 강원에서 열린다.

강원련은 △강원도의 권익옹호 △강원원학 학술 및 인적교류 △사찰 수행환경 수호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0월25일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비대위원장 범우) 5차 대의원회를 통해 전승련 산하단체로 결성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집행부 선출, 사업계획 구성, 정관심의 등을 의결하게 된다.

#### 지역감정 발언 사과요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공의장 청화·지선)는 18일 한나라당 김윤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지역감정' 발언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라져야 할 구시대 선거문화를 재연하는 정치행위로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라며 즉각 사과할 것을 천명했다.

### 점자연하장 보급

#### 대구점자도서관 20종 제작

시각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향기나는 연하장이 점자블로그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대구점자도서관(관장 배주관)을 통해 전국에 보급되고 있다. 이 연하장은 편지로 꾸밈을 통한 기존의 점자카드와는 달리 특수 약품으로 요철을 만들어 뒷면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무늬와 색상을 넣었으며 술향이 풀린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고 연말 이웃을 생각하는

시점에 첫선보인 이 연하장은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연하장은 종 촉발 신랄각시 십장생 등 전통 소재를 그린 전기영화백 작품을 토대로 20종류가 제작됐다. 테크노에서 제작해 제4회 문공류 제품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받은 이 연하장은 제작비가 저렴하고 일반인들에게 호평을 받고있다. 배관장은 "수화의 경우에는 자막을 통해 일반인들도 그 뜻을 알수 있었지만 점자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다"면서 "점자독자 공용 연하장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한 장당 1천원. (053)258-8877 <대구=이윤호 기자>

### 조계종, 위덕대군승 선발 반대

#### 진각종 독자추진 대책위 구성

진각종 위덕대학 군승사관 후보생 선발학교 지정문제에 대한 조계종 진각종 두 종단의 협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진각종의 독자추진과 조계종의 반대입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은 17일 포교위원장 성타 스님을 비롯 총무원 각 부장과 교육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관계

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조계종의 최종 반대 의견을 진각종에 전달기로 했다.

포교부장 원해스님은 "진각종 출신 군부사가 조계종의 의례·의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반대입장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각종은 조계종의 입장은 이미 예견됐지만 그동안 모색해온 독자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진각종은 20일 위덕대에서 열린 창종50주년 기념세미나가 끝난 후 독자추진과 관련해 위덕대 교학처장을 팀장으로 한 실무대책위를 구성하고 종단협 정기가 사회에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2월초까지 공청회를 열어 교계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국방부·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기로 했다.

### 교계기자 취재방해

#### 수자원공사 사과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불교와 교계기자들의 팔당사무소 취재방해건과 관련 한국불교기자협회와 불교TV의 해명요구에 대해 "취재과정중 있었던 불미스런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리며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관련자에 대해 향후 친절의무를 다하도록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메라 파손은 진위를 밝혀 귀족과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했으면 한다"고 민원회신했다.

### 종단협 소비자위 공청회

#### 유한킴벌리 불참 '무산'

'유한킴벌리와 삼우화학 문제가 관한 공청회'가 18일 유한킴벌리의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됐다. <15호 23면 기사참조>

한국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장정사)는 30일까 지 양측의 합의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1일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홍보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범어사 택지초과 부담금 '진통'

#### 12억원 마련 못해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택지초과부담금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부담금 12억원을 마련치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범어사는 8월28일 관할 금정구청으로부터 청통종 80·3번지 5천여평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 12억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범어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게 된 것은 금정구청이 90년 시행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92년부터 96년까지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 구청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문제의 땅은 전통사찰 보존법상 사찰의 존엄 및 풍치를 위해 범어사와 부산시가 협의 설정한 경계지 밖에 위치한 명백한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범어사는 지난해 토지 일부를 매각 20여억원의 채납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최근에도 금년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를 매각했으나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

### 황룡사지복원 반대

#### 고고학회 "전시행정"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는 18일 황룡사지 및 미륵사지 복원계획은 유적의 원형보존을 제쳐두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비문화적 발상이라는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문화비전2000위원회에 문화재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도 표시했다.

이밖에 고고학회는 지방국립박물관 건립계획과 관련 박물관 건립은 그 내실을 보장하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때 의미가 있으며 전문학예직원과 예산확보

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태아생명 수호 결의

#### 불교자원련 천도제

불교자원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17일 한강광나루 법당에서 신혼사 정토사 영은사 사천왕사 방생선원 관음의 집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아기령 연합천도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태아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천부적 생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 인정하여 생명을 존중하며, 낙태를 명령하고 행하고 묵인하지 말것을 촉구한다"는 태아생명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주)대동의 기증으로 정신대 할머니들의 안식처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에 총 1백4

평 규모의 2개동으로 세워지고 있다. 당초 11월내로 완공돼 3월 1일 문을 열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이 당장 내부의 전기를 제작비용과 운영비 2억여원의 부족으로 개관을 미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소식이 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눔의집이 기념관 건립에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 3천여명을 찾는데 발벗고 나섰다.

세개사에서 유래를 보기한 위안부 문제는 96년에 UN이 일본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음에도 일본정부는 망언과 묵묵

부담으로 일관하며 어용의 민간단체를 이용하여 민간기금을 주겠다고 또다시 할머니들을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다.

눈·비가 와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에서 침실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5년째 항의집회를 19일로 2백90회째 갖고 있는

위안부기념관

할머니들의 요구는 돈 몇 푼 받는 물질적인 보상때문이 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정식사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그대야만 이미 돌아가신 강경할머니들 수만여명에 이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기념관을 건립하는 목적도 이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지닌 역사성을 잊지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인이 지적한 '한민족은 망국의 민족'이라는 치욕의 말을 듣지말자는 것이다. 위안부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우리세대 뿐 아니라 다음세대에도 알려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입술을 깨물자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어는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불교계의 동체대비 실천의 상징이기도한 위안부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 '복지·역사·불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손으로 기념관을 세워보자. 위안부의 '유대인 학살기념관'처럼 여법하게... 동참은 개인 및 단체로 1구좌 10만원. (0347)768-0064

다들 입술을 깨물자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어는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불교계의 동체대비 실천의 상징이기도한 위안부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 '복지·역사·불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손으로 기념관을 세워보자. 위안부의 '유대인 학살기념관'처럼 여법하게... 동참은 개인 및 단체로 1구좌 10만원. (0347)768-0064

##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환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 香妃(향비)란?

####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썸(냄새)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장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얻어지 태초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오형의 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킵니다.

###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멎치게 되면서 혈액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으로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치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일보갈에도 향비(香譜)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두통, 관절염, 비강염(오즘스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삼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전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즘스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진하는 물리치료를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향비 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인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